

■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파장 ... 전남은 ?

시 살처분 나주 옥곡·신동리 유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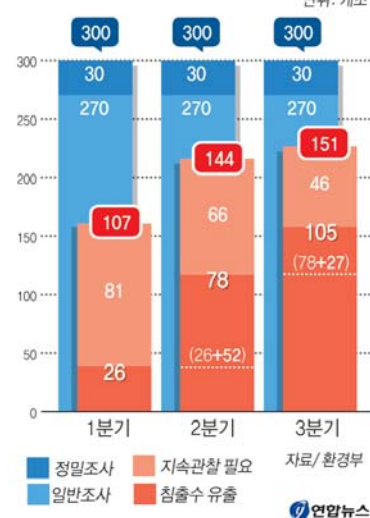
환경영향조사 결과 전국 300곳 중 105곳서 유출

정부 은폐 의혹... 지하수·하천 등 2차 오염 우려

전국 가축 매몰지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2곳이 정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로만 보면 3분기의 경우 300곳 중 151개소에서 침출수가 유출됐거나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인근 지하수 오염 우려=매몰지 침출수 유출은 물론 주변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이 없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출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2차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강 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침출수가 유출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환경부의 침출수 유출 매몰지 현황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정부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곳이 84개소에 이르면 환경부 설명도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는 정부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인근 지하수와 하천 오염 등 2차 환경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수는 유속이 매우 느리지만 한번 오염되면 복원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침출수가 연간 20~30m 이동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따르면 매몰지 침출수 유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지하수와 하천 오염으로 이어져 장기간 환경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해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MB-박원순 웃고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첫 대면을 했다. 이대통령은 박 시장을 반기며 "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5년간은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면은 국정 최고 현안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박 시장이 전날 투자자 국가소송제(ISO)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한 뒤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檢, SK그룹 계열사 10여곳 압수수색

투자금 빼돌린 혐의... SK가스 등서 자료 확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자금유용 및 선물투자 손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이종희 부부장검사)는 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관련자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텔레콤 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사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관 20여명은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힐딩스와 SK가스 사무실 등에서 최 회장의 선물투자 및 SK그룹 계열사의 창업투자자 투자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수집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 내·외부 관련자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8) 부회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들의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은 없다"며 "선물투자로 본 손해를 계열사들이 매우거나, 비자금으로 조성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잘 응해서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침출수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주기적으로 매몰지 점검과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등 대도시에 복합리조트 조성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치해야”

이창 관광공사 사장 주장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광주 등 대도시 권역에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그 안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게이밍(Gaming·도박)에 부작용이 있지만, 여차피 막을 수 없다면 양성화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게임장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을 통해 연간 57조원 가량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산업의 형태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알코올도 부작용이 있지만, 민주시민의 국가에서는 이때문에 금주령을 내릴 수 없다”며 “게이밍도 마찬가지라서 ‘국민 보호를 이유로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게이밍이 가장 매력적인 관광 소재”라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 등에서는 이를 통해 훨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복합리조트

념의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으면 큰 파이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했고 호텔 등 관광 기반시설 면에서 앞선 일본이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사업을 벌이게 되면 시장을 뺏긴다며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면적이 제주도의 3분의 1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 2개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권역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숫자에 관해서도 의견을 냈다. 다만, 관광객의 안전이나 업체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게 하는 등 리조트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뒤 ‘우후죽순(雨後竹筍)’ 식으로 카지노가 생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2005년 카지노가 합법화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와 센토사 리조트 월드(Sentosa Resort World) 등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2개를 설치, 작년 상반기에만 신규 일자리 4만여 개가 창출됐고 같은 해 관광수입이 전년보다 49%나 성장하는 등 제몹을 봤다. 카지노 18개를 운영 중인 필리핀은 40만㎡에 달하는 초대형 카지노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마카오 역시 다양한 주제를 가진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는 아직 이렇다 할 복합리조트가 없는 상태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section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Hearing Aids, including phone numbers (1588-8499, 021538-9388), website (www.segistar.co.kr),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